

교학상장(敎學相長)

교육의창

김명희
아동문학가



봄의 불회사는 여러 가지 색깔로 사람을 유혹한다.

30년 전, 문학을 공부하기 위해 찾아가던 학교에서 시를 쓰는 교수님을 만났다. 문학 수업은 교실 안에서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며 봄이 되면 우리를 불회사로 데리고 가셨다. 4월에 다녀와야 한다 시며 서둘렀다. 불현듯 그 생각이 나서 불회사를 갔다.

그동안 불사를 많이 해서 절은 더 웅장해지고, 주변 길도 새롭게 단장해 눈에 띄었다. 주차장도 넓게 자리 잡고 있었다.

여전히 불회사는 봄을 가져다 놓고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조금 덜 푸른색, 연두색, 노란색, 노르스름한 색, 누르스름한 색, 파르스름한 색, 푸르스름한 색 등 봄에 맞는 색깔을 다 쏟아부어 놓은 것 같다.

최고의 스승은 자연이라며 자연을 보여 주셨던 스승의 그 높은 뜻을 이 나이가 되어서야 깨닫는다.

나무는 자기만의 색깔을 내다가 어느 시점에서는 서로 동색을 만들어 함께 더 불어 살아갈 줄 안다.

옛사람이 이르기를 자식이란 낱기가 어려운 것이 아니라 기르기가 어렵고, 또 기르기보다 가르치기가 더 어렵다고 했다. 그 가르치는 일을 평생에 해 오는 이 땅의 선생님들. 교육이란 인간을 인간답게 만드는 일이다. 어려움을 겪어보고 참기 힘든 일을 견뎌내는 동안에 스스로 설 수 있는 사람이 되게 지도하는 것이다. 그 어려운 일을 선생님들이 하고

있는데 오늘날 선생님들을 과연 존경하는 마음으로 받들고 있는가. 우리 스스로 물어볼 일이다.

경제가 발달되면서 우리 사회도 물질주의가 팽배해지고 정신적인 가치보다는 물질적 가치가 윗자리에 서면서 종전의 전통적 가치는 크게 흔들리게 되었다. 그것은 특히 자녀 교육면에서 큰 변화를 가져오게 되었다. 거기에서부터 자녀 수는 적어지고 생활의 여유가 나아지면서 자녀 교육에서는 마치 잘 입히고 잘 먹이며 어려움 없이 자라도록 하는 것만이 부모의 할 일인 양 착각하기에 이르렀다. 그래서 오늘의 어린이들은 부모의 과보호와 과한 기대 속에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시대의 변화에 따라 나타나 할 것 없이 스승에 대한 고마움과 존경심마저 사라진 것은 아닐까.

얼마 후면 스승의 날이 다가온다. 유독 봄이 되면 생각나는 스승님은 스승의 날 때문일까? 이 봄날만큼이라도 스승을 찾아 나서는 하루가 되어 보면 어떨까? 스스로 반성해 본다.

며칠 전 SNS에 올린 내 생일을 보고, 생각지도 않았던 아이한테서 문자가 왔다. 몇 해 전에 나에게서 문학 수업을 받은 아이다. 지금은 고등학생이 되어 있을 만큼 세월이 흘렀나 보다. 그때 당시는 초등학교 6학년이었는데. 무척 반갑고 고마웠다. 사람 마음은 다 똑같지 않을까 불현듯 그런 생각이 들면서 스승님에 대한 고마움과 죄송한 마음이 교차했다.

나무에 가위질하는 그것은 나무를 사랑하기 때문이다. 겨울의 추위가 심할수록 오는 봄의 나뭇잎은 훨씬 푸르다고 한다. 늦그릇도 닦지 않으면 녹이 슬고, 구슬도 흙 속에 묻히면 보배가 될 수 없듯이 아이들의 무한한 가능성을 발굴하고 보배가 될 수 있도록 교육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바로 우리들의 선생님이다.

현대는 재능을 갖고도 성공하지 못한 사람도 많고, 교육을 많이 받고도 성취하지 못한 사람이 흔하다. 지식을 가르치는 일은 아주 기본이고, 방향을 제시하는 사람이 바로 선생님이라고 했던가. 스승이 학생에게 가르침으로써 성장하고, 제자가 배움으로써 진보한다는 말처럼, 다양한 봄을 만나게 해 주려고 봄만 되면 우리를 데리고 가 주셨던 스승님. 지금 생각해 보면 참교육이 바로 살아 있는 교육이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든다.

유방을 도와 천하를 통일한 장량이 이교라는 다리에서 한 노인을 만났다. 노인은 신발 한 짝을 다리 아래로 떨어뜨렸다. 장량이 다리 아래로 가서 신발을 주워다가 노인에게 신겨 주었다. 노인은 다른 한쪽도 다리 아래로 떨어뜨리는 게 아닌가. 또다시 신발을 주워왔는데 또 떨어뜨렸다. 그래도 장량이 아무 말 없이 신발을 주워 오는 것을 본 노인이 “자네는 마땅히 가르칠만하네.” 하고는 혹시 나에게 배우기를 원한다면 5일 후 이른 아침에 맞은편 나무 밑으로 오라고 이르고는 사라졌다. 5일째 되는 날 찾아가니 노한 얼굴로 앉아 꾸짖고는 5일 후에 다시 오라고 했다. 그러기를 몇 차례 하자 장량은 초저녁부터 나무아래서 기다려 겨우 노인보다 일찍 도착했다. 그제서야 노인은 흡족한 표정을 지으며 가르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훗날 장량이 천하대사를 도모할 수 있게 진귀한 비서의 가르침을 받았다고 한다. 쓸만한 제자를 만나고자 하는 스승의 지혜도 놀랍지만, 배우려는 제자의 집념 또한 대단하다는 생각이 든다.

사람 사는 세상에 스승을 존경하는 마음을 되새겨 본다.

돌아오는 일요일은 스승님을 모시고 불회사를 다시 찾아야겠다고 다짐해 본다.

社說

전파력 높은 ‘돼지 구제역’ 확산 막아야

무안서 돼지 5470두 살처분

무안에서 또다시 구제역이 발생했다. 장기 소강상태를 보여 방역대 이동 제한 해제를 준비하던 과정에서 추가 발생하면서 전남도는 당혹스러운 분위기다. 이번 구제역은 한우보다 전파력이 높은 돼지에서 바이러스가 검출되면서 확산 우려마저 커지고 있다.

전남도는 11일 무안군의 양돈농장 두 곳에서 구제역 발생이 추가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구제역이 발생한 농장을 중심으로 3km 지역을 설정한 방역대 이동 제한 해제 검사 중 두 농장 축사 바닥에서 구제역 바이러스가 검출되자 가축을 정밀 검사했고, 그 결과 구제역임을 확인했다. 구제역 중앙사고수습본부는 해당 농장의 출입을 통제하고, 두 농장에서 사육 중인 돼지 5470두를 전제 살처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올해 국내에서 발생한 구제역은 모두 16건으로 늘었다. 구제역 종식 선언을 앞두고 반경 10km 방역대 내 해제 검사 중 두 농장 축사 바닥에서 바이러스가 검출됐고, 정밀검사 결

과 12마리가 구제역에 무증상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달 23일 영암 한우농장에서 14번째 구제역이 발생한 후 19일 만이다. 국내 돼지 구제역은 2018년 4월 이후 꼬박 7년 만이다. 구제역이 첫 발 생했던 1934년 이후 91년간 단 한차례도 발생하지 않아 청정 지위를 유지해온 전남에서는 사상 첫 돼지 구제역이다. 10여 차례에 걸친 한우 구제역에 이어 이번엔 소보다 바이러스 배출량이 최소 1000배에 이르는 돼지 구제역까지 터져 전남 축산 농가에 비상이 걸렸다. 구제역 확산을 막기 위해 무안 발생농장 3km 방역대를 기존대로 유지하고 이동제한 기간은 3주간 연장했다.

전남 10개 시·군에 내려진 구제역 심각 단계도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축산시장 개장도 보류하기로 했다. 현재 개발된 백신의 경우도 소에는 효능이 높게 나타나지만 돼지에는 항체 형성이 70%를 넘지 못하고 있다. 현재의 방역체계만으로는 구제역 바이러스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철저한 방역과 가축 사육환경 개선이 시급해 보인다.

기대되는 장성군 건동광산 재활용 계획

소중한 관광자원 방치 안돼

장성군이 석회석 채취가 중단된 건동광산 지하 폐광산을 재활용할 계획이라고 한다. 건동광산 지하 경도는 우리나라 최대 규모의 석회석 인공 동굴로 관광자원의 가치가 높다. 폐광부지를 재활용하겠다는 장성군의 의지가 실현돼 건동광산이 지역의 미래를 이끄는 소중한 자원으로 탈바꿈하길 기대한다.

13일 장성군에 따르면 최근 김한중 군수 등이 건동광산 재활용 방안 모색을 위해 경기도 광명시 광명동굴을 답사했다. 광명시 근린공원에 위치한 광명동굴은 일제 강점기인 1912년께 급·은·구리 등을 채굴하기 위해 개발된 광산이다. 1972년 대흥상 당시 제련 과정에서 중금속이 포함된 폐수가 인근 농경지를 덮치면서 보상 문제로 폐광됐다. 이후 2010년 들어 광명시가 폐광을 매입해 ‘동굴 테마파크’를 조성했고 한국 관광 100선에 선정될 만큼 유명 관광지로 발전했다. 특히 광명동굴은 건동광산에 비해 규모 등이 훨씬 뒤떨어지지만 특화된 콘텐츠로

관광객의 인기를 끌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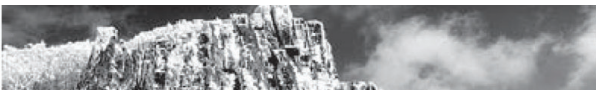
건동광산 지하 폐광산이 가진 가치는 크다. 당장 석회석을 채굴하기 위해 만든 경도가 55km에 이르고 깊이 또한 221m에 달한다. 경도만으로도 방치하기 아까운 관광자원인 셈이다. 7m 높이로 만들어진 14개의 층도 보는 이를 압도하게 만든다. 각 층마다 조성된 넓은 광장도 이색적이다. 연중 섭씨 12~15도의 온도가 유지돼 동굴 내부가 항상 쾌적하다는 것도 장점이다. 지난 2022년 지방선거 때 유두석 장성군수 후보가 ‘건동광산 지하동굴에 미디어 테마파크, 호텔, 스포츠센터, 동굴카페 등을 구축하겠다’고 공약한 것도 이 때문이다.

폐광산을 새로운 관광자원으로 조성하는 것은 장성의 미래 먹거리를 만든다는 점에서 반가운 일이다. 무엇보다 방치됐던 폐광의 미래를 꿈꿀 수 있기 때문이다. 국내 최대 규모라는 인공 석회석 동굴을 사장시키지 않는다는 장점도 있다. 장성군은 광명동굴 답사를 거울삼아 건동광산 재활용을 위한 큰 그림을 그려야 한다. 장성이 가진 소중한 자원을 무의미하게 방치해선 안된다.

全南日報		사장·발행·편집인 이재욱		논설실장	이용환	편집국장 박성원
민주주의 구현 진실보도 실천 지역개발 선도	대표전화	(062)527-0015		경영지원팀	(062)510-0421	
	기사제보	(062)510-0331		광고영업팀	(062)519-0710	
	편집부	(062)510-0412		문화체육부	(062)510-0351	
	취재1부	(062)510-0380		온라인뉴스부	(062)510-0461	
	취재2부	(062)510-0394		사진부	(062)510-0391	
www.jnilbo.com m.jnilbo.com		정치부	(062)510-0340			
		구독료 월 1만5천원 1부 800원	1988년 4월25일 등록번호 광주 가-2호 (일간) 우편번호 61474 광주광역시 동구 제봉로 137			
구독신청 (062)510-0471 광고문의 (062)512-0100						
FAX (062)510-0436 서울지사 (02)725-8890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 독자 의견을 환영합니다 (e-메일) webmaster@jnilbo.com

서석대



스페인에서 변호사로 활동하던 마리오 코스테하 곤잘레스는 지난 2009년 구글에서 ‘마리오 코스테하 곤잘레스, 부채 및 재산 강제 매각’ (1998)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발견했다. 당시 빚 때문에 집을 내놓아야 했던 상황에서 압류된 부동산의 경매 공고문까지 첨부된 기사에는 자신의 개인정보가 고스란히 담겨있었다. 사건 또한 그의 입장에선 10여년 전 해결된 일이었다. 곤잘레스는 ‘인권 침해’를 주장하며 스페인 정보보호청을 통해 신문사와 구글에 기사 삭제를 요청했다.

이에 대해 스페인 정보보호청은 ‘신문사의 보도’는 ‘언론의 자유’에 관한 사항으로 청구인의 요청을 거부한 반면, ‘구글 검색 결과’는 ‘명예훼손’의 가능성이 있으므로 청구인의 요청을 인정, 구글에 해당 기사 링크를 중단할 것을 명령했다. 하지만 구글은 기사 내용이 모두 사실이고, 해당 조치 역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 사건은 결국 소송으로 이어졌다. 긴 재판 끝에 2014년 스페인 고등법원 유럽 사법재판소는 ‘구글은 웹페이지 링크를 삭제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는 법원이 ‘잊혀질 권리’를 인정한 첫 사례로, 표현의 자유나 경제적 이익, 알 권리보다도 개인의 정보나 사생활의 보호가 더 중요하다는 ‘잊혀질 권리(right to be forgotten)’가 인정되기 시작한 기점이다.

한국에서도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을 통해 ‘잊혀질 권리’를 규

정하고 있다.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통해 피해자가 불법 촬영물 삭제를 요청할 수 있는 규정도 있다. ‘알 권리’와 대치되며 ‘잊혀질 권리’에 사회적 합의는 여전히 더 필요한 상황이지만, 그래도 살아 있는 자들의 ‘잊혀질 권리’는 우리 사회에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가는 모양새다. 그렇다면 죽은 자들에 대한 ‘잊혀질 권리’는 어떨까.

최근 연일 기사가 쏟아지고 있는 고(故) 김새론과 김수현에 대한 진실 공방은 사그라들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 유족과 유튜브들은 ‘고인의 억울함을 풀기 위해서’라는 명분으로

폭로를 이어가고, 폭로의 대상이 되는 이는 수차례 반복과 유족의 주장을 반박하는 과정에서 논란의 중심에 섰다. 그 과정에서 이미 고인이 된 또 다른 이와 과거 이들과 인연을 맺었다며 소환되는 수많은 유명인들까지. 과연 이 모든 것을 고인이 원했는지 의문이다.

최근 본보 독자위원회의 한 위원은 ‘온라인 뉴스 시대에 언론의 사후 관리에 대한 중요성’을 언급했다. 잘못이 없다는 것이 입증된 후에도 문제 발생 당시 보도됐던 기사들이 꼬리표처럼 따라다니는 부분에 대한 우려였다. 언제든 과거의 일을 생생하게 들여다볼 수 있는 온라인부터 이를 원하는 대로 재가공할 수 있는 AI까지. 더 이상 종이 신문이 아닌 ‘디지털’, 그리고 ‘조희수’에 목숨을 거는 모든 언론이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부분이자 시점이지 않을까 싶다.

박지혜 취재2부 기자